

일본형 디플레의 원인과 시사점

일본형 디플레의 원인은 수요부족이라기 보다는 임금·고용, 수출, 물가·환율 등에서 일본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부족한 수요를 메꾸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특효약이 아니며 생산, 분배, 지출에서 경제의 호순환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

- 일본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수요부족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은 일본보다 더 큰 수요부족을 안고 있는데도 오히려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경제신문은 일본과 미국과의 차이를 조사,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수요부족이 일본보다 큰 미국은 물가상승이 지속

- 수요부족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으로 측정되는데, 2011년 4/4분기 일본의 수요부족은 공급능력의 3.4%, 연율 환산으로 약 15조엔에 이름
- 제품을 생산해도 판매가 부진 → 가격인하 경쟁 과열 → 급여 감소 →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디플레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일본 이상으로 수요부족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통용되지 않음
- 2011년 4/4분기 GDP갭은 5.5%로 2008년 이후 일본을 상회. 리먼 쇼크 이후 가계의 부채정리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2.2%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엔고 : 장래 물가예상의 차이

- 일본 내각부는 미래의 물가상승 차이에 주목. 일본과 미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1년 후의 예상물가상승율을 조사한 결과, 2004년 이후는 일본이 0~3%였으나, 미국은 2~5%에 달함. 일본은 미국에 비하여 항상 2%정도 낮은 수준으로 일본의 소비자는 물가하락에 익숙해져 있음
- 소비자의 물가예상은 기업의 가격전략이나 임금교섭의 전제가 됨
- 물가상승을 예측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상품가격을 인상하기가 쉬운데 일본의 가계는 디플레가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금하락이 두려워 소비의욕이 살아나지 않고 있음
- 엔고 또한 수입물가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여 기업도 디플레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짐
- 이 또한 물가상승을 당연하게 생각,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미국기업과는 대조적임

□ 임금·고용 :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 차이

- 미·일간 또 하나 차이는 임금으로 일본종합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명목임금은 1995~2010년 기간 중 11% 감소. 미국은 같은 기간 중 72% 증가
- 일본은 불황 때에 인건비 조정 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미국은 인원을 정리하는 대신, 남아있는 종업원들의 임금수준은 유지해 줌
 - 즉, 일본형 조정방식은 고용을 방어하는 효과는 있으나, 임금감소로 소비의욕이 줄어들음
 - 미국형 조정방식은 실업율은 상승하는 대신 기업의 이익회복이 빨라,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
- 요컨대, 일본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온존시키는 경향으로 이것이 디플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임

□ 수출의존도 차이

- 수출의존도 차이와도 관련이 있는데 내각부에 의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율도 낮음
 - 이는 수출상대국의 가격경쟁에 휘말려 임금이 하락, 가게의 저가격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임
 - 2002~2007년 GDP증가율에 대한 수출기여도에서 일본은 미국보다 약 7.5배나 크고 수출상대국도 생산코스트가 낮은 중국 등 신흥국이 많음

- 메릴린치 일본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일본은 환율과 물가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 물가는 환율 변동과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엔고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때문에 임금과 물가가 하락하게 되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미국에 비하여 이러한 경향이 강함

□ 시사점

- 디플레의 배경이 이상과 같은 일본 특유의 구조문제에 있다면, 부족한 수요를 메꾸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특효약이 아님
- 그보다는 생산, 분배, 지출에서 경제의 호순환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

< 참고문헌 >

일본경제신문(2012.5.28)